

2020 년 7 월 19 일 “창세기의 사람들(2) 아벨과 가인”(창 4:1-12)

<도입>

오늘 본문은 인류의 타락 이후 제사의 분리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문제로 인해 살인으로까지 번진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적 이유를 포함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 가인의 태도와 행동

종종 사람들은 이 제사 분리의 원인을 따집니다. 제일 잘못된 설명은 아벨은 짐승을 드려서 받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를 종종 언급합니다.

(예: 사 1 장.)

어떤 성도도 항상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친 육신과 산란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갖고 힘을 얻으면, '내 예배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경우라면 '아벨의 제사는 경건하고 아름다웠어. 나도 다음 제사는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악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고 내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을 포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을 주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더욱 합당한 존재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친 가인은 자기 멋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2] 아벨의 죽음

4:8 '... 아벨을 쳐죽이니라'

쳐죽인다는 말은 구약에서 원수나 짐승을 죽임, 법적 심판을 행사하는 사형을 뜻합니다. 이 용례들의 뉴앙스를 참고한다면, 가인은 '아벨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원수야. 심판을 받아라' 라는 뜻을 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은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살인뿐 아니라 경멸하고 혐오하고 욕하는 말과 행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극악한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힌 아벨이 핏소리로 호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라며 묻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에 합당하게 보응(보복, 갚아 주심, 신원)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심판의 매우 중요한 속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의 기초인 땅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므로 이를 보존하시기 위해 파괴하는 존재를 응징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차원에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3] 보응/심판에 대한 성경의 사상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아벨의 호소와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자는 구원을 간구하는 동시에 심판과 보복 또한 간구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에 관한 말씀 중,

사 61:2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 구원의 날은 심판의 날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 23:35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값아지리라)’ 당시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 역대기 24 장에 사가랴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당한 순교적 죽음에 대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계 6:9-10 을 보면 다섯 번째 인 심판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값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올리는 보응/신원의 기도는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지막 심판이 이미 아벨의 죽음에 보응하심으로 같은 맥락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당한 아벨의 죽음과 같은 역사 속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아벨과 사가랴처럼, 제단 아래 순교자들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창조의 순방향으로 전진하게 하고 싶은 사모함과 열망 속에서 파괴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두려운 것이지만, 창조의 완성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맺음>

시편의 기도자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동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일구어가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가인의 살인은 어떤 면에서 비성경적입니까? 설교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보십시오.
2.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